

성실과 신용으로 고객만족 실현 은산토건(주)

정도와 흥익, 인화와 단결.

은산토건(주)는 1993년 창업 이래 “정도와 흥익”의 경영이념 하에 오직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 최상의 자재사용, 전사적 자원 관리인 ERP 시스템 도입, 안전품질환경의 생활화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만족을 받는 국내 최고의 전문건설업체가 되고자 끊임없는 노력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매진하여 왔다.

은산토건(주)는 2000년도에 디지털 경영의 일환으로 정보화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 정보전산화 기본 인프라인 전사적 자원관리인 ERP시스템을 정착시켜 전 현장 및 본사가 유기적으로 실시간 자원관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의 투입현황을 파악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각 현장의 CCTV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 화상회의 및 실시간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열악한 실정을 깨닫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정운택 회장의 의지이다.

CCTV로 현장안전관리 및 영상경영시대를 열다.

* 안전관리 및 생산성 극대화, 비용지출 최소화의 부가가치 창조

은산토건(주)는 본사와 지사간의 영상회의는 물론 폐쇄회로(CCTV)를 공사현장에 설치, 원격으로 실시간 현

각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회장실 50인치 PDP



장 안전 관리에까지 활용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인 은산토건(주)는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토공사 여건상 쉽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전경영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객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정운택 회장의 의지로, 10여개 현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 실시간으로 서울 본사 회장실, 사장실, 토목본부 및 안전관리팀에서 50인치 PDP 화면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 및 상황통



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산토건은 자료와 사진에 의존하거나, 수시 방문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는 물론, 현장 상황의 상시 확인이 불가능 했던 문제점 등을 해결함은 물론, 실시간 현장관리, 통제를 통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현장관리 감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최소화 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 정운택 회장이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활동**

은산토건(주)는 꾸준한 안전관리활동을 전사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2004년도 조직개편에서는 정운택 회장이 직접 안전관리본부장을 역임하여 강력한 안전예방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현장별 안전관리담당자 선임발대식 및 안전대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 하고 사고사례별 원인분석 개선책 발표를 통

해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 인천지하철 건설본부 품질안전관리 최우수업체 표창, 99년 제1회 한국산업 안전 공단 안전 사례발표 토공부문 우수상 표창, 00년 학산-영동 도로 현장 무재해 3배수 목표달성 표창, 두산건설(주) 무재해 MILEAGE 실적우수상 표창, 03년 한진중공업(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제 9공구 현장 무재해달성 표창, 04년 노동부 장관 전문건설업체 안전활동 우수사례 금상 수상, 05년 한진중공업(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제 9공구 현장 무재해달성 표창, 현대건설(주) 강동2단지 아파트 재건축현장 안전환경관리 최우수 관리상 등을 수상했다.

*** 전문건설업 IT 선봉으로**

은산토건(주)는 2000년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건설정보화의 인프라인 ERP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통신환경 및 임직원의 마인

드 부족으로 구축 1년여 만에 고배의 잔을 마시고 2년 후
 절치부심하여 ERP 시스템 정착에 성공 현재는 주변 업
 체의 부러움을 사는 이른바 건설 IT 업체의 선봉으로 우
 뚝 섰다. 그러기 까지는 정운택회장의 이른바 “하고자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뚝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주변에서 ‘전문 건설업에서는
 아직 이르다, 혹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
 변의 질시와 우려 속에서도 정운택 회장은 오로지 외길
 만을 고집, 전문건설업계의 IT 선봉으로 우뚝 선 것이
 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단계인 정부 건설
 CALS화 에 동참해 2004년에는 CALS 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게 되었고, 일반건설업계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
 는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 전문 건설업계 마의 고지 매출액 1100억원 돌파
 은산토건은 국내 건설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
 운택 회장 및 전 임직원이 인화와 단결한 결과 지난 2003

년도에 매출액 960억 영업이익 20억 경상이익 47억 순
 이익 39억을 달성하였다. 또한, 창업 11년만인 2004년도
 에는 전문건설업계 에서 마의 매출액 고지라 불리우는
 1100억 원대에 진입하는 쾌거를 날기도 하였다.

내가-DEVELOP
 목표달성은우리가-ACHIEVE
 창의적역량을하나로-GROUP

은산토건이 올해를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전사적 운동 “NEW JUMP 2005”
 의 슬로건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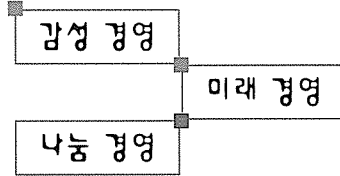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 글로벌화에 앞장선
 은산토건(주) 정운택 회장 과 임직원들은 오늘도 불철주
 야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목표
 달성 의지로 보다 나은 은산토건(주)의 미래를 향해 매진
 하고 있다. ☺





은산그룹 / 정운택 회장

相生의 情治人



은산그룹의 정운택 회장은 풍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상생의 미래를 공유하고자 하는 情治人이다.

스스로 앞장서 격식을 벗어던진 채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에 호소하며 감성을 관리하는 따뜻한 그의 모습은 현장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은산토건(주)에서는 조직원의 열정, 창의성 및 도전정신과 끈끈한 감성적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상호존중과 신뢰, 즐거움과 열정이 넘치는 은산토건의 분위기는 그의 흥익과 정도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녹아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기업 말단사원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공사현장에서 노무·인사업무를 수행하며 인간관계의 철학적 기반이 다졌고, 85년부터 기업경영에 참여하기 시작, IMF시절 각고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은산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初心의 熱情**”을 강조하는 그는 불가능은 없다고 말한다. 철저한 자기인식은 그의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기업이이익만 챙기려는 등외의 기업으로 머무르지 않고 온갖 역경과 시행착오를 받아들이며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운택 회장이 겸손해하며, 한사코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보면 그의 기업가정신을 엿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지역 봉사활동, 업계 대표위원활동, CALS협회 부회장 등 맨손으로 뛰어난 정운택 회장, 그의 처음은 혼자였지만, 한번 연분을 맺으면 끝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그의 진면모를 겪은 지금 많은 이들은 그를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라고 평한다.

많은 이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삭막해진 현대사회이기에 오히려 눈에 띄는—평소 회사는 직원의 몫이라고 말하는—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人間美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참다운 기업인상을 발견할 수 있다.

